

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영농급수 공급 총력

✎ 이재용 | ☎ 승인 2025.03.06 | □ 16면

저수율 91% 유지·시설물 정비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용구)는 강원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지역의 저수지 9곳에 대한 평균저수율을 91%로 유지, 올해 영농급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따르면 용수 공급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는 농경지 면적인 수혜면적 6484ha 가운데 저수지의 수혜면적이 4174ha, 양수장의 수혜면적이 1135ha, 취입보의 수혜면적이 1175ha에 달하고 있다. 이에 철원지사는 오는 4월 영농기에 앞서 용수 공급시설물 정비를 완료해 농업인들에게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농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2024년 강원권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 지사로 선정됐다. 지사는 지역 내 청년창업농 증가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년농의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전략을 마련해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구 지사장은 "영농기 이전에 추진할 사항인 시설물 점검 및 용·배수로 준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본격적인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철원지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이재용 yjyong@kado.net